

강주성 (여) 19살: 주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하고 싶은 말은 담아두는 자신과는 다르게 늘 자신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주연이 신기하고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주성은 과묵하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친구이다. 주성은 얼른 성인이 되어서 집안의 빚도 갚고 술도 마시는 성인의 삶을 꿈꾸지만 아버지의 자살 사건 이후로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연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처음으로 고백하려 했지만 주연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자 주연이라면 같이 죽어도 두렵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내 같이 죽자고 말한다. 주연이 다리에서 자신의 손을 놓고 떠났을 때 더 이상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S#.7 / 사건 당일 / 주성의 집 안방 / 오후

문을 열자 막걸리병과 소주병으로 엉망인 안방 한 가운데 흐트러진 낡은 이불 사이에 토사물을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주성의 아빠.

주성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

주성, 아빠에게 다가가려다 실수로 소주병을 발로 건드려 소주병이 방 바닥에 쓰러지면서 주성의 양말을 적신다. 주성, 바닥으로 시선을 옮기자 소주병 사이에 농약이 눌혀져 있어 빈 병임을 알고는 곧장 허리를 숙여 앉아 슬픔을 토해낸다.

주성

(감정에 북받쳐)

나 혼자 뭐 어찌라고...왜 혼자만 죽어 왜

때마침 울리는 주성의 핸드폰 벨소리

주성, 전화 상대가 주연인 것을 확인하고 눈가를 손목으로 대충 닦고는 곧장 전화를 받는다.

주성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주연아...나

주연, 주성의 말을 끊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주연

V.O

주성아...엄마가 나 같은 게 무슨 대학이냐고... 돈 아깝대
씨발, 나 이딴 촌구석에서 평생 썩을 바엔 그냥 죽고 싶어...

주성, 아무 말없이 주연의 말을 듣다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대답한다.

주성

진짜 죽자.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

주성,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에서 낡은 신발을 신고 나간다.